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9호 【루계 제2497호】

주체107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음력 5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신도군갈종합농장 갈1분장 14포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오니 50여년전 이곳에 거룩한 발자취를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에 의한 화학섬유생산을 활성화하자면 신도군을 대규모의 갈생산기지답게 잘 꾸리고 갈재배를 과학화, 현대화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며 갈수송문제를 해결하여 공장들에 섬유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갈농사를 잘 지어 최고수확년도의 기록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계속 갈대풍을 안아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생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갈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관수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전력설비와 양수설비들을 일신하고 수리정비를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생산된 갈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갈수송선단들을 재정비하고 잘 꾸려줄데 대한 문제, 비료와 농약을 충분히 보장하여 갈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문제, 군안의 로력을 타사업에 동원시켜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도군에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는 연유와 륜전기재들의 다이야, 부속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전력설비와 양수설비, 끌배와 부선실태를 조사하고 정비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새로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책임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신도군갈종합농장 갈1분장 기계화작업반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농장들에 많은 뜨락또르와 농기계, 농기구들을 보장해주고있지만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와 농기구를 소중히 다루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신도군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세심히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군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우에 새로 생겨나고 발전하여온 고장인 신도군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륙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에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알곡생산을 늘이고 축산기지, 수산기지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위력한 생활밑천을 갖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군인민병원을 도시의 큰 병원 못지 않게 현대적으로 잘 꾸려주어 자체로 치료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 웬만한 수술도 할수 있도록 의료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군안의 소학교, 중학교들도 잘 지어주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함으로써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하여 군인민병원과 학교들을 우리 나라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의 전형단위, 표준단위가 되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여주시고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섬에서 사는 군내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거듭 마음쓰시며 교통조건까지 헤아려 뻐스를 비롯한 륜전기재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부두로 향하시는 도로에는 어느새 소식을 전해듣고 달려나온 신도군인민들로 인파를 이루었다.

너무도 뜻밖에 원수님을 뵈온 충격과 기쁨,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터치는 신도군인민들의 열광적인 만세환호는 온 비단섬을 진감하며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창문을 여시고 군인민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5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5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부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과 흥분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교양실, 병실, 세목장, 콩창고, 온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양실에 들리시여 군부대군인들의 교양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선 군부대의 임무상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교양과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초소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근무를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콩창고를 돌아보시면서 군부대의 콩농사실태를 료해하시고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콩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이 군부대와 같이 외진곳에 떨어져있는 전투단위들에는 콩가공설비들도 잘 차려주어 군인들에게 콩음식을 다양하게 해먹이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을 돌아보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관하 1116호농장에서 육종한 다수확우량품종의 농작물과 남새작물들을 병영주변에 많이 심고 도입하여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메탄가스를 리용하여 땔감문제를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후방토대를 잘 갖추고 군인들의 식생활보장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도 군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근무수행에 전심할수 있는 생활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혁명의 붉은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의 관문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언제부터 한번 와보려고 하였는데 오늘에야 왔다고, 공장에서 최근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시간을 내여 왔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모셔진 뜻깊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회속에 보시면서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의 시초를 열어주신 우리 수령님과 경치좋고 물맑은 남신의주지구의 아담한 산기슭에 공장터전을 새로 잡아주시고 장래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각별한 관심속에 공장이 자랑찬 발전행로를 걸어온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누직장, 기초화장품직장, 화장품직장, 제품견본실, 봄향기화장품전시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화장품생산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명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고 선호하는 질좋은 화장품들을 대대적으로 꽝꽝 생산해내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들에서 그 가지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우리 녀성들이 미처 골라쓰지 못하고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만이라도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수령님, 장군님 한평생의 로고가 스민 귀중한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비약해야 한다고, 《봄향기》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이 대단하고 수요가 높다고 하여 절대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은하수》화장품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여보면서 공장제품들의 질을 새롭게 갱신하고 수요자의 기호와 년령, 체질별특성에 맞게 품종을 늘여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특정한 효과들을 정확히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분석설비들을 갖추고 새로운 실험방법과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의 가치를 높이는데서 화장품용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특성과 기호품으로서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사용에 편리하게 각이한 형태와 크기, 색갈로 만들며 화장품을 선물하거나 기념품으로 줄수 있게 포장형식을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제품들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에서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공업화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을 계속 내밀데 대한 문제,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자, 연구사대렬을 잘 꾸려 공장을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기술집약형공장으로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화장품원료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분장용화장품과 차향수, 위생실향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화장품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갈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견본실과 봄향기화장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특색있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면서 평양시내에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봄향기》화장품을 전문판매하는 상점을 멋있게 건설할데 대한 지시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화장품공업의 발전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가며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1959년 9월에 조업한 신의주방직공장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천을 생산하는데서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기대 하나하나에도 한평생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고가 슴배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직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 생산능력을 부단히 장성시킬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며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창립 60돐을 맞는 다음해까지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생산건물들과 공장안팎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변모시킴으로써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굴지의 방직공장으로 장성강화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 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며 몸소 합숙터전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신 다음 제지직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사업인 후대교육사업에서 지금 걸리고있는 문제의 하나가 종이를 수요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종이공업을 추켜세워 학생들의 교과서나 참고서, 학습장생산에 필요한 종이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을 원료로 시험적으로 생산한 종이를 보아주시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종이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진행하고있는 개건현대화사업을 료해하시면서 제기되는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공장을 추켜세우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당에서 중시하고 기다리는 종이생산공정개건현대화사업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종이생산공정개건현대화를 시급히 결속하고 생산건물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와닥닥 끝내며 갈하선장부두준첩공사도 다그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훌륭히 개건현대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답게 꾸리고 갈을 기본원료로 하는 종이생산을 대대적으로 해나갈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업적은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이 땅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4돐을 맞이하고있다.

《김 일 성
1994. 7. 7.》

이 아홉글자의 친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애국애족의 한생과 숭고한 조국통일유훈이 깃들어있다.

지금 온 겨레는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4돐에 즈음하여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해방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였을 때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립장과 의지를 밝히시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적인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에 응할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안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대초 격페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신것은 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과 근본성격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7.4공동성명의 원칙들을 부정하고 분렬영구화를 《정책》으로 선포하는 극악무도한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분렬매국세력에게 철추를 내리시고 자주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새롭게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이날도 새벽 일찌기 새날의 집무를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날까지 이틀동안 진행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느라 피로가 겹쌓인 속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한장한장 세심히 검토하시고 활달한 필체로

《김 일 성
1994. 7. 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이 친필에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이 뜨겁게 어려있고 통일조선의 창창한 래일이 빛발치고있다.

가장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통일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막아나섰다.

온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로 우러러모시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상실이였고 영원히 가실수 없는 아픔이였다.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하며 분렬과 대결, 전쟁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혹한 난국이 조성되였던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화강석비돌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 드팀없는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어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뚜렷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새 천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기점인 주체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이다.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의지를 집대성하여 북과 남의 수뇌분들께서 처음으로 직접 서명하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근본리념과 근본립장, 근본방도로부터 시작하여 북남관계발전에서 나서는 현실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위한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대중적운동으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전진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경제와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주체96(2007)년 10월 또다시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계속 높이 추켜들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북남선언리행이 전면차단되고 북남관계가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북남사이의 폭넓은 협상제안을 비롯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련이어 내놓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정녕 통일에로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통일대진군이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와 탁월한 령도,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실천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겨레의 통일위업을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3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반드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3월에 단행하신 력사의 땅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올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통이 큰 결단과 현명한 방략이 담겨져있고 한피줄을 나눈 겨레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절세위인의 신년사는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폐쇄되였던 북남사이에 판문점련락통로가 개통되고 군통신이 재개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측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북남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였으며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관현악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남측지역에 나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기운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웅지를 안으시고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시여 온 민족과 전세계에 감격과 환희의 격파가 일어번지게 하시였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인 판문점선언은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 **김정은**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멈춰섰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있은지 29일만인 지난 5월 26일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시였다.

참으로 몇달전만 하여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화해와 평화에로 급전환하고 북남관계에서 꿈같은 대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특출한 령도와 절세의 위인적풍모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7(2018)년 7월 6일
평 양

통일애국의 위대한 한평생

력사의 땅 판문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쓰신 뜻깊은 친필이 새겨진 비가 숭엄하게 솟아있다.

《김 일 성
1994. 7. 7.》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7월에 더욱 가슴깊이 안겨오는 이 아홉글자의 친필에는 그이의 통일애국의 한평생이 어리여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민족최대의 과제로 내세우시였고 기나긴 세월 조국통일의 새벽길을 걷고걸으시였다.

열렬한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온 겨레를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통일애국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하시여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였고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이 통일되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였다.

주체82(1993)년 3월 조국을 방문한 재미동포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였고 온 겨레가 머지않아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라고 락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과 유훈인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여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의 넋이 어리여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여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비범한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여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성업은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악랄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였으며 각계층 동포들과 단체들의 련대련합이 실현되여 온 강토에 전례없는 단합열기와 통일열풍이 고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위업, 유훈이며 온 민족의 절절한 열망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해전 5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대규모사절단들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 파견하시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불씨를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멸의 친필이 빛나는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4.27선언을 안아오시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도 《통일에 한발 선뜻 다가선 사변》, 《4.27선언은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 《정말 멋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다.》, 《새 력사를 펼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격찬을 금치 못해하였다.

북남관계발전의 새시대,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 5월 또다시 판문점에서 마련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또하나의 력사적인 계기로 되고 온 겨레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는 7월 온 민족은 통일성업실현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념원하신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이 반드시 올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지구촌을 진동하는 대사변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 보는 국제력학구도의 대전환을 예고한 세계정치기류의 급격한 변화가 형성되고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중심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신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바이다.

세계정치무대를 뒤흔든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력사적인 첫 조미정상회담, 3개월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이나 단행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중국방문, 그 세기적사변들을 통해 과시된 그분의 비범출중한 활약과 파격적행보들은 하나하나가 세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판문점상봉때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기신 필체도 내외에 큰 파문과 충격, 여운을 남기였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위인적초상을 그 유명한 필체에서 강렬하게 받아안은것은 결코 나만의 심정이 아닐것이다.

비범한 위인상이 빛발치는 명필체

필체는 지성과 인격의 반영이며 필체를 보면 그 인간을 알수 있다고 한다.

력사적인 4.27판문점상봉때 온 겨레와 전세계의 감탄과 찬사를 자아낸 명화폭의 하나가 바로 방명록에 남기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필체였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

거침없이 단숨에 써내려가신 최고령도자님의 필체는 말그대로 일필휘지의 극치였다.

세인들은 그분의 경이로운 필체와 필법을 접하며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과시 출중한 위인이 다르시다고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굉장히 호방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을 보여준다.》, 《락천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두뇌회전이 매우 빠르다.》…

그 경탄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비범출중함에 대한 솔직하고 꾸밈없는 찬사였다고 생각한다.

새겨볼수록 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백두산의 웅자와 같이 거창하고 시원시원하며 마치 살아움직이는듯 황홀하고 기세차다.

큼직큼직하면서도 오른쪽방향으로 힘차게 뻗치여나간 필체의 약동성과 장중함에서는 국제정치의 거장으로서의 우주적안목과 담대한 기상, 젊음과 락관의 기상이 맥박친다.

불꽃튕기듯 빠르고 거침없이 날아오르듯 단숨에 내달린 필체의 강한 운동감과 속도감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일단 결심한 목표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강의성과 원칙성, 내밀성의 투영이다.

안정미와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전체적구도에서는 그 누구든 너그러이 품어안아 정과 마음을 주는 따뜻한 인정미와 친근감이 흘러넘친다.

세인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세기적상봉들에서 스스럼없이 상대와 악수도 하시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신 감동적인 모습, 격식과 틀을 깨시고 오랜 친구처럼 산책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신 여유로운 행보, 중대한 합의문건들에 거침없이 수표하시고 환한 미소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신 경이로운 화폭들에는 그분의 비범한 필체의 기상이 그대로 맥박쳐 만사람을 숙연케 하였다.

돌이켜보면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안목과 령활무쌍한 지도력으로 몇달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세기적전변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솔선 주도해오시였다.

저물어가는 지난해의 언덕에서 복잡다단한 정세의 본질과 대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올해신년사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단행하시고 당당한 전략국가로 부상한 공화국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한 새 세계를 창조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였다.

그분의 호방하고 활달하신 필체를 음미해보느라면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하시며 남측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최고령도자님의 자애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다.

국무위원장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여서 새해부터 평창겨울철올림픽경기를 민족의 경사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북녘의 대규모통일사절들이 휴전선을 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악의 전쟁접경에 다달았던 《한》반도에 화해의 순풍이 휩쓸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분단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는 특대사변이 일어났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마련된 수뇌상봉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경륜과 비범한 결단, 대범한 포옹력의 일대 과시였다.

외세가 긴긴 세월 강요한 민족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단호히 부정하시며 강토의 허리를 갈라놓은 분리선을 한걸음에 성큼 넘으시던 격동적인 순간순간들, 문재인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분리선을 다시 넘으시여 경탄을 자아내신 파격의 연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은 우리 민족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온 겨레에게 페부로 절감하게 해주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받아안은 겨레의 감격과 환희, 국제사회의 놀라움과 격찬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그로부터 또 한달이 되여 판문점에서 격식과 틀을 벗어난 두번째 수뇌상봉이 열려 세계를 놀래웠고 남북관계는 오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속도감있게 추진되여나가고있다.

싱가포르북미수뇌회담 또한 얼마나 지구촌에 메가톤급충격을 주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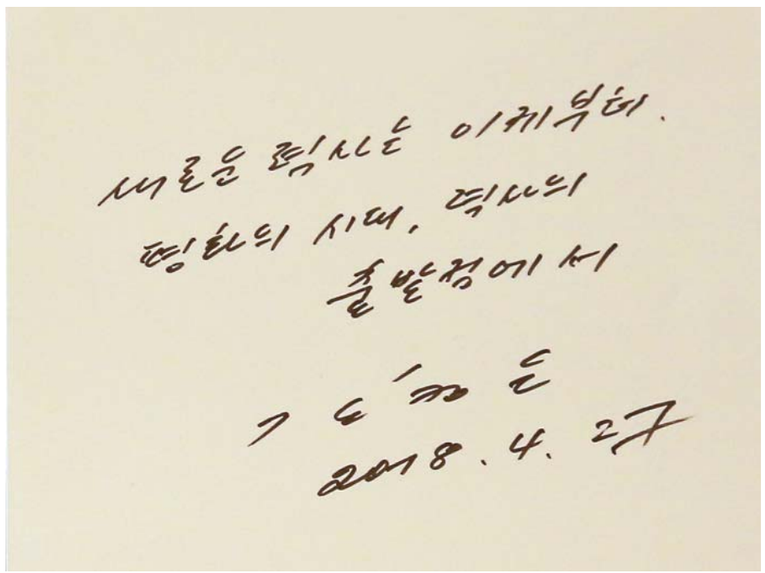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 력사의 6월 12일,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 자리에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국무위원장님의 뜻깊은 말씀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가 화해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퇴성이였다.

그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교과서처럼 순간에 터득하게 해주고 그 특대사변들이 앞으로 또 어떤 위대한 대변혁으로 이어지게 되겠는가를 환히 내다보게 하는 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가 아닐수 없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계승이 위대하여 더욱 돋보인다.

필체전문가들이 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20~30° 기울어진 각도로 오른쪽우로 올려쓰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필체를 련상시킨다.》고 한결같이 평한것처럼 그분의 필체는 신통히도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필체그대로이다.

사상과 뜻도 하나이고 품격과 기상도 같아 필체도 그렇게 신통히 닮은것이 아니겠는가.



파란많은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정치원로로, 강철의 정치가로 각광받으시며 민족의 운명과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신 **김일성**주석님, 류례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여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이북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 그분들의 지론과 기상을 이으시여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사상과 신념도 백두산웅자와 같이 끄떡없고 위용찬것이라고 본다.

하늘을 날으듯 거침없이 내달리신 활달한 필체와 정의와 용맹이 나래치는 필맥그대로 선친들처럼 민족과 세계사의 획을 긋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모시여 북이 강대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전략적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고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비범한 필체에서 빛발치는 세계적위인의 출중함과 무비의 정치력으로 **김정은**령도자님께서는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현대사의 흐름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고계신다.

금과옥조가 담겨진 심오한 명필체

필체에는 정치가의 지향이 비껴있고 명필의 진가는 그 뜻으로 하여 더욱 빛나게 된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방명록에 새기신 글발은 몇개의 문구밖에 되지 않지만 수천수만자의 글에도 담을수 없는 심오한 철리가 함축되여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함을 자아낸다.

장장 반세기가 넘는 분단력사의 경험과 교훈을 깨우쳐주고 남과 북이 나아갈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쾌히 밝히고있어 진가의 무게를 더해주는 그분의 명필체이다.

그래서 그분의 필체를 보면 서체의 일반적기법과 필치의 황홀함을 초월하는 깊은 뜻과 가치를 지니고 민족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환히 안겨온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최고령도자님의 이 글발에서는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으로 서로 오해하고 불신해온 비정상적인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그분의 확고한 결심과 열렬한 호소가 메아리치고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분렬로 인한 비극과 고통을 가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남과 북사이에 대화와 협상도 적지 않게 진행되였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좋은 합의문건들도 많이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합의들은 쓰라린 진통과 좌절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겨레의 실망은 컸고 남북사이의 간격은 더욱 멀어졌다.

새 세기에 들어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안겨준 두차례의 력사적인 정상회담과 기념비적인 6.15, 10.4선언들이 당치 않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댄 이남보수《정권》에 의해 가슴아픈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던가.

이러한 악순환이 다시는 시간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결심, 이제부터는 남과 북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민족의 대의를 위해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분의 글발에 맥동치고있는것이다.

《평화의 시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이 글발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토에서 살아가려는 겨레의 열망과 지향이 또 얼마나 절절하게 울리고있는것인가.

서로 총구를 맞대고 대결해온 적대의 력사, 전쟁의 먹구름이 떠도는 첨예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고 온 겨레에게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가셔주시려는 투철한 평화의지가 그분의 필체에 력력히 어리여있다.

분렬의 비극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헤아릴수 없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간절한 소망은 없다.

그러나 평화의 길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였고 남과 북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며 온 민족의 파멸과 《한》반도의 불행을 초래할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천만한 계선을 무수히 넘나들기도 하였다.

평화달성을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온 겨레에게 남과 북이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의 출로를 열어갈수 있다는것을 전민족적인 공감과 확신으로 전환시켜주신분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다.

그분의 평화의지는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에 구현되여 삼천리강토에 평화의 서광을 밝게 비쳐주고있다.

《력사의 출발점에서》,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있는 글발이다.

바로 여기에는 남북 두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출발이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분렬과 통일열망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시작되였음을 내외에 알리는 통일령장의 선언이다.

판문점상봉에서 마련된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여 온 겨레에게 민족의 창창한 래일,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시려는 그분의 굳센 각오와 결심이 어려있는 불멸의 명제이다.

중중첩첩 난제와 장애로 엉켜져 풀기 힘든 화해와 통일의 길을 민족자력으로 기어이 열어가시려는 높은 책임감과 소명의식, 분렬로 온갖 고생과 비극을 다 겪은 겨레에게 전쟁이 없는 새세상을 안겨주시려는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망과 의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위인의 명필체가 아닐수 없다.

그분의 명필체를 자자구구 새기면 민족이 나아갈 길이 환히 보이고 남과 북이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뚜렷이 안겨온다. 누구나 그 불멸의 금언앞에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애족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된다.

그래서 이남의 한 통일인사가 《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는 우리 민족이 언제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이다. 그 뜻을 따를 때 누구나 애국에 살고 통일에 살수 있지만 그에서 탈선하면 누구든지 매국배족의 길을 걷게 된다.》고 토로했는가싶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통일운동사를 보면 동족을 배척해온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말로가 비참하였다.

이남보수의 원조인 리승만이 《북진통일》을 떠들며 동족과 대결하다 하와이로 쫓겨가 무주고혼이 됐고 5.16쿠데타로 권좌를 차지하고 《승공통일》을 부르짖던 박정희는 심복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했다. 12.12숙군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하고 군부독재의 연장으로 《체제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전두환이나 로태우도 결국은 감옥행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격동적인 6.15시대를 결딴내고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결정책으로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리명박도 오라를 지고 감옥에 처박혔고 일개 선무당의 요설에 놀아나 《북체제붕괴》망녕에 사로잡혀 대결광기를 부리던 박근혜도 초불항쟁에 의해 탄핵당해 비참한 옥살이신세를 면치 못했다.

오늘의 민족화해흐름을 《위장평화쇼》로 들먹이며 《색갈론》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해 사상최대의 몰락위기에 처했다.

력사는 분단에 기생하여 권력과 부귀를 쫓는 정치간상배들은 반드시 력사의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를 우러르며 우리 겨레가 신뢰하고 받들어야 할 민족단합의 구심은 누구이시며 민족화해와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페부로 새겨안고있다.

최근 남녘판도는 물론 해외동포사회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일단 결심하시여 《한》반도에 깃든 화해와 평화의 봄기운이 반드시 풍요한 열매로 이어지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급속히 확산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의해 패권과 불의가 횡행하는 구시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새 세계에 자리를 내주게 될것이라는 국제정치가들의 분석도 주목을 끌고있다.

오늘 세계가 앞을 다투어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민중을 사랑하시는 유능한 정치가》,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적지도자》, 《합리적인 세계지도자》이시라고 격찬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세기적대전환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민족과 세계정치를 견인하시는 최고령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과 래일을 책임지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이끄실 절세의 영걸이시며 그분을 모심은 우리 민족의 무상의 행운이고 긍지이다.

겨레여!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명필체에서 비쳐오는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그분을 따라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하자.

바로 여기에 애국애족의 참뜻이 있으며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통일강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재카나다동포 고진호

생산의 동음,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게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인민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반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평안북도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찾으신 신도군은 지난날 외진섬이던 곳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아래 대규모의 화학섬유원료기지로, 비단섬으로 변모된 고장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사람들속에 《봄향기》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화장품생산기지이고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들도 경공업과 화학공업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산업시설들이다.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륙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군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자급자족할수 있는 위력한 생활밑천을 갖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민병원과 학교들을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의 전형단위, 표준단위가 되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외지에 사는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이께서는 뭍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섬사람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여 세심히 보살피시며 일일이 조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에는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구상과 의도가 담겨져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생산실태와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시며 인민들이 즐겨찾고 선호하는 질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봄향기》화장품의 질을 더 새롭게 갱신하고 품종을 늘이는 문제, 화장품용기를 다종다양하게 만드는 문제,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화장품개발과 생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는 사람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만들어 그들의 얼굴에 아름다운 봄향기, 문명생활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려는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의 길이였다.

신의주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고 방직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은 비단섬의 갈을 기본원료로 하여 섬유와 종이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곳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종이공업을 추켜세워 종이를 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종이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공장과 종이생산공정을 개건현대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공장들은 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생산단위들이다.

그이의 현지지도에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데로 지향시키며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경제로 발전시키도록 하시려는 뜻과 의도가 어리여있는것이다.

장혜련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는 4.27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

또한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맞게 끓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이다.

민족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되여오던 판문점에서 진행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은 온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북남장령급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회담,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최근에는 북남통일롱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대표단, 선수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통일롱구경기가 진행되는 등 북남관계개선분위기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동해나가는데서 남조선당국이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할것은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리행이며 그에 배치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는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근본핵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사활적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북남관계개선의 길, 조국통일의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오직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길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조건에 빙자해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리성심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진행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이 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산림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북남통일롱구경기 평양에서 진행

북과 남의 선수들 혼합경기 진행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평양에서 북남통일롱구경기가 개최되였다.

북과 남의 남녀롱구종합팀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통일롱구경기는 북남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구성된 팀들사이의 혼합경기와 북남종합팀들사이의 친선경기방식으로 진행되였다.

북남롱구선수들의 혼합경기가 4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있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과 선수단 주요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경기에 앞서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김일국체육상은 북남수뇌분들의 높은 뜻에 의하여 이번 통일롱구경기가 마련된데 대해 언급하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측의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한피줄을 이은 겨레의 따뜻한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북과 남이 하나가 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힘있게 떨친다면 아리랑민족의 위상은 온 세상에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가 평화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마음과 발걸음을 맞춰 전진해나가려는 북남체육인들의 지향과 의지를 시위하고 서로의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남북수뇌분들이 채택한 판문점선언에 의하여 남과 북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해나가고있으며 그 선두에는 남북체육교류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통일롱구경기는 체육교류를 확대발전시키고 민족화해와 단합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선수들이 실력과 우정을 겨레와 세계앞에 아낌없이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시민들이 남과 북이 하나된 함성을 남녘동포들과 전세계가 들을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통일롱구경기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반갑습니다》노래주악이 울려퍼지는 속에 북과 남의 남녀선수들이 서로서로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중들은 동포애의 정으로 그들을 따뜻이 환영하였다.

북과 남의 선수들은 장내를 돌면서 관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였다.

먼저 선수, 감독, 심판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은 다음 북과 남의 남녀선수들은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뉘여 혼합경기를 각각 진행하였다.

경기들에 출전한 북남선수들은 보조를 잘 맞추어나가면서 다양한 전술로 적극적이고 대담한 공격들을 시도하였다.

먼거리던져넣기, 꽂아넣기 등 높은 기술과 재치있는 특기동작으로 선수들이 멋진 득점장면들을 펼칠 때마다 박수갈채와 환호가 터져올랐다.

휴식시간에 녀성취주악단이 펼친 세련된 연주와 우아한 률동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선수들의 열띤 경기활동과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하여 장내에는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가 차넘쳤다.

이날 녀자경기는 번영팀이 이기고 남자경기는 비긴 가운데 끝났다.

본사기자

북과 남의 남녀롱구종합팀들사이의 친선경기 진행

북남통일롱구경기가 4일에 이어 5일에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첫날 경기에서 민족화해와 단합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북남롱구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각계층 평양시민들, 체육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모여왔다.

북과 남의 남녀롱구종합팀들은 각각 홍팀과 청팀으로 나뉘여 친선경기를 하였다.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높은 기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하였다.

재치있는 특기동작들로 련속 점수를 올리는 량팀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였다.

경기휴식시간에 민족의 슬기와 억센 기상을 과시하는 북측 태권도인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선수들과 함께 뛰는 심정으로 응원하며 장내를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녀자경기는 청팀이, 남자경기는 홍팀이 이긴 가운데 끝났다.

경기를 관람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 선수단의 주요성원들이 선수들을 만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은 한데 어울려 기념사진도 찍고 서로 얼싸안고 격려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나눈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관람자들은 통일롱구경기를 통하여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와 박수갈채를 터쳐올리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북남통일롱구경기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 북남체육인들의 의지를 시위하고 북과 남이 하나로 뭉치면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더 높이 떨칠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비방중상은 누구에게도 리로울것이 없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조미사이에는 후속대화들이 일정에 오르면서 긍정적인 대화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대조선《인권》압박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6월 28일 미국무성은 그 무슨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데서 공화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묘사하면서 걸고들었다.

이에 앞서 미하원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에 만료된 《북조선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조선인권법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뒤이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북조선인권개선》을 조선반도비핵화전략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시키는 놀음까지 벌렸다.

그런가 하면 미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와 행정부의 개별적인물들은 《비핵화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 《문재인정부가 북조선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력사적실책이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보조를 맞출것을 압박하고있다.

이것은 지구상 마지막랭전을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조미관계개선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우롱이다.

따지고보면 조미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쌓기놀음은 그 누구에게도 리로울것이 없다.

인권을 문제삼는다면 오히려 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이 인권불모지인 미국에 대고 할 소리가 더 많다.

그러나 공화국은 조미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에 서로의 비방중상은 백해무익한것으로 되기에 대범한 자세에서 두 나라간의 좋은 미래만 론하고있는것이다.

비방중상은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씨이며 그것이 중지되지 않는 한 조미사이에 제대로 된 관계개선이나 긍정적인 성과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대화를 하겠다는것은 제발을 스스로 묶어놓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무성의 대조선《인권》압박소동은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깎아내리고 그를 어째보려는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서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의 거대한 의미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행에 대치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은 조미쌍방이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을 대담하게 버리고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때이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자들, 공화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부정하며 적대시하는자들의 악설에 놀아나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

예로부터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미국무성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불신하는 바르지 않은 언행 하나하나가 조미사이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행위

싱가포르에서 있은 세기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후 조선반도에서는 대결과 불신의 장막을 밀어내며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장장 수십년동안 녹을줄 모르던 전쟁과 대결의 해묵은 얼음을 녹이는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고조되기를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인류가 바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최근 이상기류가 밀려오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은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공화국을 비난하는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미의회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북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는것이 상정되고 이것도 모자라 기존의 《북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북인권법재승인법안》이 통과되였다.

한편 남조선의 통일부는 《북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선후차를 정한적이 없다.》, 《북인권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태평양너머 워싱톤에서 울려나오는 상전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생겨날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적대세력들은 《인권》문제를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의 도구로 삼아 모략소동에 광분해왔다.

대결시대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케케묵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어렵게 마련된 오늘의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특히는 조미사이에 긍정적인 사태발전들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다시 등장하고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미가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신뢰구축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할 시점에 과거 대결시대의 잔재들이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조미가 서로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하여야 할 때이다.

미국이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추동할 대신 그에 역행하여 벌리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저촉되는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관심이 있는가를 의심케 하고있다.

문제는 상전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편승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말과 행동은 일치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 화해에 대하여 말끝마다 렬거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반공화국《인권》소동과 같은 행동을 벌리는것은 언행의 일치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일이다.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할 대신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편승하여 동족을 헐뜯고 불신하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배치되는것으로서 과거의 동족대결책동을 재현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새것을 창조하는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낡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대결잔재들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부당한 행위는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재앙의 화근-미군기지

남조선에서 서울 룡산에 있던 미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앉았다. 얼마전 평택에서 새로 건설된 미군사령부청사 개관식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함께 생긴 미군기지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죽음,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인천항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무고한 남조선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기 시작한 미군은 전쟁시기에 이어 전후에도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움직이는것은 무엇이든 쏴라!》, 이것이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기지들에서 공공연히 제창되여온 살인구호였다.

백주에 어린애를 업은 녀인을 붙들어놓고 집단적으로 륜간한 끝에 살인한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임신부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하자 군화로 마구 차서 잔인하게 살해한 임신부살해사건, 소녀를 막사로 끌고가서 집단릉욕하려다가 저항한다고 목을 졸라죽인 소녀집단륜간사건, 세인을 경악케 한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 등 남조선강점 미군이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 감행한 귀축같은 살인만행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미군기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고통과 물질적피해를 주고있다.

미군기지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청력장애는 물론 두통, 귀울림현상, 수면장애, 임신장애, 정신착란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미군기지들에서 흘러나오는 유독성페유와 독극물들은 남조선의 산야와 강하천들을 원상회복이 힘든 완전오염지대로 만들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환경부가 서울 룡산미군기지내 지하수오염조사를 벌린 결과에 의하더라도 벤졸이 허용수치의 160배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벤졸은 위험한 발암성물질로서 장기간 인체내에 흡수되면 어지러움과 머리아픔, 기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백혈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과 암이 발생하게 된다. 고농도의 벤졸을 흡수하면 생명까지 잃게 된다.

기지이전을 강행한 미국의 속심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작전체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일석삼조의 포석이라 할수 있다.》고 평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반미시위들이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국민주권련대》와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미집회가 열리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 리행하라!》, 《환경오염 미군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웨쳤으며 룡산미군기지주변을 따라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한편 부산에서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미문화제가 열리였다.

남조선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투쟁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민심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한순학

남조선의 로동단체들 생존권보장을 요구

남조선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로동단체들의 투쟁이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는 《비정규직철폐 전국로동자대회》가 진행되였다. 민주로총과 산하단체들을 비롯하여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정부〉가 직무급제도입으로 임금을 낮추려 하고있다. 비정규직은 평생 가도 정규직임금의 38% 수준이다. 청소와 경비, 관리직 같이 직무를 나누어 등급과 신분을 만드는것이다. 직무급제는 현대판 노예제, 신분제라고 단언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명중 20만명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는데 학교비정규직은 고작 10%밖에 전환되지 않았다. 〈정부〉는 로동자들에게 사회적합의를 강요하며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날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있다.》며 현 당국이 《공약》으로 내들었던 비정규직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3개의 도로를 따라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본사기자

단평 그 홍준표에 그 《나무》

남조선에서 경상남도 도청청사앞에 있는 《홍준표나무》가 살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뿌리채 뽑아버린것이 사람들의 큰 화제거리로 되고있다고 한다.

《홍준표나무》로 말하면 2016년 당시 경상남도지사로 있던 홍준표가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도청앞에 직접 심은 사과나무인데 그 나무가 5개월만에 말라죽자 주목나무로 바꾸어심었다. 하지만 그 나무마저 시들어 2017년 4월에 40년생인 주목나무로 바꾸어심었으나 그것도 시들어 경상남도 도청은 《홍준표나무》를 뽑아버리기로 결정한것이다.

《홍준표나무》가 뽑히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상남도주민들은 《홍준표적폐나무를 철거하는 결정은 정말 잘하였다.》, 《도주민들의 수치심을 씻어주었다.》, 《홍준표의 그림자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깨고소해하였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층은 《홍준표나무와 함께 비석도 없애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밟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비석철거집회까지 열었다고 한다.

지난 6월에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한 책임을 지고 아예 정계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 홍준표이다. 그런데 엎친데덮친격으로 자기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무도 죽어 뽑히웠으니 그의 신세가 가련타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이다. 그러나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역행하면서 온갖 못된짓을 다한 홍준표가 거꾸러지니 산천초목도 감정이 있는지 그의 이름으로 된 나무도 뭇나무들의 비난속에 시들시들 말라죽는것 같다.

동족대결을 체질화하고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홍준표가 보수와 함께 비참한 운명에 처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누구든 동족대결을 하면 어떤 기구한 신세가 되는가를 《홍준표나무》가 잘 말해주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족사에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고려의 건국

고려는 10세기초에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재건하고 국토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망을 반영하여 세워졌다.

901년 왕으로 된 궁예가 나라이름을 《후고구려》(후에 마진, 태봉국이라고 함)라고 한것은 당시 인민들속에서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는 지향이 강렬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시기 통일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았다. 이미 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웠으며 그 열기는 고려시기에 더욱 고조되였다. 태봉국말년에 궁예의 반대파들이 왕건이 앞으로 국토를 통일할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도참설》들을 널리 퍼뜨린 사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태봉국안에서 궁예의 폭정은 극도에 달하였다. 궁예의 강권과 전횡, 권모술수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은 인민들의 분노와 반항심을 분출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배층에까지 퍼져갔다.

이러한 사회력사적배경속에서 918년 왕건은 측근자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왕건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갔는데 수도와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였으며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왕건은 왕위에 오른 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정하였다.

고려는 1392년까지 수백년동안 존재하였다. 고려의 건국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사변적의의를 가진다.

우선 고려의 건국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가 출현하게 되였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천년강국으로 자랑높았던 나라였다. 고구려는 민족의 지향인 삼국통일을 다그쳐 5세기말~6세기초에 방대한 령토를 차지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놀았다.

고구려이후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는 발해로 이어졌으며 그 정통성은 10세기초에 세워진 고려에 의해 확고히 계승되게 되였다.

왕건이 고구려의 옛 남부지방에서 고구려유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나라를 세웠으며 국호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한것은 그 계승국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것은 고려장군 서희와 외래침략군의 우두머리와의 담판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때 서희는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한것은 그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들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당시 고려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떳떳한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국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의 건국으로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은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게 되였다.

또한 고려의 건국으로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형성과 민족의 통일적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계승하여 국토통일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갔다.

이것은 고려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이어받았을뿐아니라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포섭정책으로 주변의 봉건세력들을 복속시키고 서경(평양)을 중심기지로 꾸려 북방진출을 다그쳐나갔다. 그리고 926년 발해가 멸망하자 동족의 나라인 고려로 찾아오는 수많은 유민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한편 고려는 후기신라를 포섭하고 후백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였으며 마침내 936년 국토통일을 이룩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합된 힘과 지혜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경제와 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킬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려의 국력과 발전된 문화가 떨쳐졌으며 우리 나라는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고려에서는 《고려자기》, 《고려비단》, 《고려먹》 등으로 불리우는 천하의 명물들이 생산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키였다.

이처럼 고려의 건국으로 하여 민족사에 첫 통일국가를 출현시킨 사변이 기록되게 되였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겨레는 자기의 존엄과 슬기를 더욱 높이 떨치며 자랑스러운 발전의 년대기를 수놓을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건국 1 100돐이 되는 해이다.

본사기자

호평이 자자한 《봄향기》화장품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화장품은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묘향산과 랑림산맥에서 자라는 희귀한 천연기능성약재들이 들어있는 다기능성영양화장품이다.

《약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개성고려인삼에는 칼리움과 나트리움, 칼시움을 비롯한 무기물과 비타민 B군 특히 B_1, B_2와 함께 아미노산, 글루타민산 등이 풍부히 들어있다.

《봄향기》화장품에는 인체에 일상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의 특성에 맞게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들과 천연활성물질들이 들어있어 피부를 윤기나게 하고 피부의 로화를 방지하며 미백효과가 크다.

또한 중금속이온이 없고 표준미량원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리상적인 물로 만들었기때문에 피부의 세포재생과 단백합성을 촉진하고 항방사능작용, 항암치료 등 건강과 피부로화방지에 좋다.

《봄향기》물크림과 보습성살결물만 보아도 강한 보습작용으로 피부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잔주름을 없애며 습진 등 각종 피부병예방치료에 특효가 있다.

《봄향기》미백영양물도 피부에서 멜라닌색소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주름살이 생기는것을 막아주며 밤크림역시 강한 영양제침투로 피부의 피흐름량과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살갗병을 예방하는데 좋다.

피부색을 연하게 하고 검버섯과 주근깨를 없애며 밝고 투명한 피부로 갱신해줌으로써 미백의 본질적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미백화장품세트는 녀성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애기용화장품세트도 애기들의 연한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맑고 생신하게 해준다.

《봄향기》화장품들은 그 영양가와 기능성이 대단히 높아 이미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이딸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등 국제상품전시회들에서 상장을 수여받았다.

피부천연보습제인 고분자, 저분자히알루론산생산방법, 미백제원료인 누룩산제조방법, 자외선방지기능을 가진 원료제조방법 등 국내원료에 의거한 우리 식의 생산방법으로 만든 《봄향기》화장품은 국내외의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이 대단하다.

본사기자

고려성균관

력사유적의 옛 모습을 살려

개성시가 력사문화도시답게 더욱 변모되고있다.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근년간 100여개 대상의 력사유적들과 고려성균관, 자남산유원지를 비롯한 교육 및 문화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개건확장하였다.

한편 민족유산보호관리부문 근로자들은 왕건왕릉, 만월대, 관음사, 령통사를 비롯한 수십개 대상의 력사유적보수작업을 짧은 기간에 진행하여 옛 모습을 살려놓았다.

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는 력사유적들의 고려시기보존상태를 학술적으로 새로 확증한 남대문과 숭양서원건물지붕, 울타리공사와 경효왕릉 등 력사유적들에 대한 단청작업을 고전미가 나게 질적으로 해놓았다.

고려박물관에서는 참관자들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진렬전시를 과학성과 순차성, 생동성과 립체성을 보장하면서 박물관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전시내용을 폭넓게 하였다.

본사기자

흡연보다 더 나쁜 운동부족

어느 한 나라 학자들이 국내에서 사망한 35살이상의 어른 2만 4 079명을 대상하여 그들이 사망하기 전 10년동안의 생활방식을 조사한 결과 6 400명이상이 운동부족으로, 약 5 700명이 흡연으로 사망했을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체운동을 적게 하였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에게서는 45%, 녀자에게서는 28%,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92%와 75%,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52%와 98% 더 높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학자들은 담배를 피우는것이 나쁜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것은 더 나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이 권고하고있는 적당한 운동의 기준량은 한주일에 30분씩 3~4번 혹은 매일 30~60분씩 운동을 진행하는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단백초》를 식생활에 리용

공화국에서 식생활에 《단백초》를 리용하는 단위와 가정들이 늘어나고있다.

싱아산이 들어있어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있는 《단백초》를 끓는 물에 데쳐 씻은 후 음식감으로 리용하면 잡맛이 없어지고 구수한 맛이 난다.

《단백초》는 만두나 빵의 소감으로, 고기류와 섞어 볶음에 많이 리용되며 토장국을 끓일 때에 리용하면 독특한 맛을 나타낸다.

잎을 그대로 갈아 즙을 만들어 국수재료나 지짐감 등에 섞으면 음식의 질이 보다 높아진다.

《단백초》로 만든 김치도 맛과 빛갈이 좋은 특색있는 식품으로 되고있다.

생물학적특성이 우수하고 경제적가치는 물론 이름그대로 단백질함량이 높은 이 남새작물은 지난해에 육종되여 공화국 각지에 퍼지고 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신지글자 (2)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그는 뒤따르는 군사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사슴을 놓쳤다.》

그러자 군사들이 두 골안에 나누어 내리며 《후—여!》 후리소리를 쳤다. 산이 가파로와 몰이군사들의 걸음이 굼떴다. 신지는 군사들의 걸음을 재촉시키고 또 사냥의 흥을 돋구려고 소리쳤다.

《사슴을 먼저 찾는자에게 상을 줄테다.》

이 말이 골안에 찌렁찌렁 메아리치자 뒤이어 군사들의 후리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군사들은 저마다 먼저 사슴을 발견하고 상을 받자는 심산에서 더 활기를 띠였다. 그러나 오래도록 사슴을 튕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한동안 지났을 때였다.

《여기 있소이다.》

한 골짜기에서 군사의 웨침소리가 들렸다. 신지는 곧말을 몰아 그 골짜기로 내려갔다.

《어데 있느냐?》

신지는 소리친 군사에게 다우쳐 물었다.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여기에 발자국이…》

《발자국?》

신지는 소리친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골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밀리여 쌓인 넓은 모래불우에 두마리의 사슴이 달려간 발자국이 력력하였다.

《발자국을 보고 있다고 소리쳤나?》

《그러기 말일세.》

《그러면 상은 발자국에게 주어야겠구만…》

뒤따라 모여온 군사들이 비웃으며 떠들었다. 소리쳤던 군사는 얼굴이 벌개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사슴발자국을 보는 신지에게는 사슴을 놓쳐버린 아쉬움이 사라졌다. 사슴이 간곳을 말해주는 발자국이 고맙게 생각되였다.

그래서 사슴의 발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을 때였다.

《있소이다. 있소이다. 사슴이 저기 있소이다.》

사슴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리쳤던 그 군사였다. 신지는 머리를 들어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무성하게 우거진 덤불속에 누런 사슴의 몸뚱이가 약간 보이였다. 참으로 발자국이 없었더라면 사슴을 찾아내지 못하였을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넝쿨속에서 몸을 빼여 달아나려고 허우적거리는 사슴과 발앞에 놓여있는 사슴발자국을 번갈아보던 신지는 움직일줄 모르고 멍하니 서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한마리 사슴이 간신히 넝쿨속에서 몸을 빼여 달아나고 뒤이어 다른 한놈도 몸을 빼고있었다.

이를 보는 군사들이 안타까이 소리쳤다.

《사슴이 도망친다.》

그래도 신지가 멍하니 서서 보기만 하니 군사들은 하는수 없이 창을 들고 사슴한테로 달려갔다.

《가만, 잡지 말어라.》

신지는 큰소리로 군사들을 멈춰세웠다. 군사들은 달려가다말고 서서 달아나는 사슴과 신지를 번갈아보면서 의아해하였다. 신지는 의아해 바라보는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하였다.

《오늘 사냥은 이만하겠다.》

그리고 군사들을 둘러보았다.

《아까 사슴발자국을 찾은자가 누구냐?》

《저올시다.》

《이리 나서라.》

그 군사가 한걸음 나섰다. 신지는 그에게 자기의 활과 전통을 벗어 내주었다.

《약속한대로 주는 상이다.》

《네?》

그 군사는 어리둥절하여 주저하였다.

군사가 활과 전통을 받자 신지는 그길로 군사들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사냥에 나가지 않았다.

신지가 사냥갔다가 다 잡을번했던 사슴도 쏘지 않고 놓아주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다시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괴이한 이야기가 궁궐의 군사들속에서는 물론 궁궐 관리들속에서 돌면서 별의별 뒤소리들이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과 뒤소리가 드디여 단군의 귀에까지 전하여졌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다.》

이렇게 생각된 단군은 어느날 신지가 일하는 방으로 조용히 찾아갔다.

《그대는 어이하여 사냥하다말고 돌아왔느냐? 그동안 일에 치우치다나니 사냥맛도 잃어버린게 아니냐?》

《아니오이다.》

《그럼 어째서 다 몰아놓은 사슴도 잡지 않고 놓아주었더냐?》

단군의 이런 물음에 신지는 그때 사슴을 잡을수 없었던 사연을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소인은 차마 사슴을 쏠수 없었나이다. 그날 처음 나타난 사슴을 쫓다가 제 잘못으로 그만 놓쳐버렸는데 다시 사슴을 찾은것은 그것들이 남긴 발자국이였나이다. 순간 사슴을 다시 발견한 기쁨은 컸으나 다음 순간 차마 사슴을 쏠수가 없었나이다.》

《어째서?》

《오늘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림이 죄송스러우나 소인은 지난날 사냥에서 사슴을 따르다 놓쳐버렸을 때처럼 전하께서 내린 지시가운데 오래된것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아 다시 물으려 오는 사람한테 대주지 못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나이다. 사슴은 흔적을 남기여 놓쳐버린 사슴을 다시 찾게 하여주었으나 소인은 한번 잃어버린 지시를 다시 되살려낼 재간이 없음이 사슴보다 못하다는 부끄럼이 들었나이다.》

《사슴보다 못하다…》

《그렇소이다. 이때 소인은 들은 지시나 소인이 한일을 사슴처럼 뒤날에 다시 되살려내게 하는 흔적을 만들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사냥을 거두고 즉시 돌아왔나이다.》

《그래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낸다는것인가?》

그러자 신지는 방 한구석에 쌓아놓았던 대쪽무지에서 몇개 쥐여다 단군에게 보였다. 그 대쪽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선과 점들이 그어져있었다.

《소인이 그날부터 밤마다 생각해본것이나이다.》

《여기에 그은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말에 각기 뜻과 소리가 다르듯이 이 선과 점들이 말과 뜻을 대신하게 하면 어떤 말이든지 대쪽에 옮겨놓을수 있고 그후 아무때이건 이 대쪽을 보면 그 어느때 한 말이라도 다시 알아볼수 있게 될것이나이다.》

《그것 참 신통한 생각이로다.》

《그러면 임금이 내린 어지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이런데 옮기여두면 우리 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뿐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먼 후대에게도 오래도록 전할수 있을가 하나이다.》

《그렇다…》

단군은 신지의 방 한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대쪽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크나큰 기쁨과 감탄이 어린 기색으로 신지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참말로 좋은 생각을 하였다. 사냥을 하면서 사슴의 발자국 보아오지 않은이 없었건만 이런 생각을 한것은 오직 나라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오는 그대뿐이로다. 어서 빨리 그 방법을 만들어내거라.》

《알겠소이다.》

이날부터 신지는 단군의 깊은 관심속에 말과 뜻을 대쪽에 옮겨놓을 방법을 탐구하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드디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이 글자를 신지가 만들어내였다 하여 후세에 신지글자라고도 하고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드디여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사슴글자 즉 《록자》글자라고도 불러온다고 한다.

고조선의 옛무덤에서 발굴되는 질그릇들에 새겨져있는 신지글자들과 《녕변지》에 실려있는 16자의 신지글자는 그 당시 신지가 만들었다는 글자의 모양을 오늘에도 력력히 볼수 있게 하고있다.

(끝)

오랜 력사를 가진 그네뛰기

조선녀성들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온 민속놀이들가운데는 봄과 가을에 널리 진행해온 그네뛰기도 있다.

그네뛰기는 그네대 혹은 굵은 나무가지에 두가닥으로 늘여맨 바줄(그네줄)끝에 디디개를 얹고 그우에 올라 앞뒤로 구르면서 높이 날아오르기를 겨루는 운동놀이이다.

그네뛰기는 공간에서 자기의 몸을 가눔할줄 아는 기능과 대담성, 용감성을 키워주며 사람들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명랑하게 하여준다.

력사기록에는 세나라시기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네뛰기가 널리 진행되였는데 그중에서도 평양의 그네놀이가 특별히 유명한것으로 씌여있다.

지방에 따라 《굴리》, 《굴기》, 《홀기》, 《궁구》, 《군디》라고도 불렀으며 《추천》이라고도 하였다.

그네뛰기에는 한사람이 뛰는 형식(외그네)과 두사람이 한 그네에서 마주 향해 함께 뛰는 형식(쌍그네 또는 맞그네)이 있었다.

보통 승부를 가를 때에는 외그네뛰기를 많이 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평시에도 녀성들 누구나 다 그네뛰기를 즐기고 있다.

그네뛰기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절찬을 받는 교예종목으로 발전하였다.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과 중국의 무한국제교예축전, 오교국제교예축전들에서 교예 《쌍그네비행》이 금상을 수여받은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무엇이 서러워 울겠소이까》

꾀돌이네 종자닭을 빚값으로 빼앗아간 지주가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 꾀돌이아버지를 욕질했다.

《내 빚값으로 가져간 네놈의 수닭이 크고 멋지긴 해도 울지 않으니 언제 제구실하겠느냐?》

지주에게 아버지가 욕을 먹는것을 본 꾀돌이가 말했다.

《주사님, 우리 닭은 하나밖에 없는 종자수닭이온데 기르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것 같소이다. 모이는 주었소이까?》

《물론, 하루에 세번씩 꼭꼭 주었다.》

《집에 암닭도 있소이까?》

《있다뿐이겠느냐. 아주 멋진것이 있지.》

《주사님, 그러니 닭이 무엇이 서러워 울겠소이까. 먹을것도 있는데다가 암닭까지 있는데…》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